



한국축구대표팀이 지난 2일(한국시간) 영국 벅크 오브 잉글랜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훈련에서 서둘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촌 축구전쟁

오늘 밤~내일 새벽 월드컵 본선 진출국 A매치데이

오는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전 세계에서 축구 전쟁이 일제히 벌어진다.

남아공 월드컵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32개 본선 진출국들이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데이를 맞아 자존심을 건 정면 대결을 벌인다.

월드컵 개막을 100일 앞두고 치러지는 A매치는 총 46경기. 하루 전날에 맞붙는 브라질-아일랜드 경기까지 포함하면 47경기에 이른다.

관심을 끄는 경기는 4년 전 독일 월드컵에서 불꽃 튀는 승부를 펼쳤던 독일-아르헨티나, 스페인-프랑스 간 평가전이다.

‘전차군단’ 독일은 4일(한국시간) 새벽 3시45분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로 남아 축구의 강호 아르헨티나를 불러들여 맞붙는다.

독일은 ‘중원사령관’ 미하엘 발락(첼시)과 공격수 미로슬라프 클로제(바이에른 뮌헨)·루카스 포돌스키(뮌헨)를 불러들여 남아공 월드컵 모의고사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맞서는 아르헨티나 역시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 등 유망파들을 총출동시킨다.

‘무적함대’ 스페인과 ‘뢰블레’ 프랑스 간 A매치도 관심거리다.

스페인 은 부상에서 회복한 페르난도 토레스(리버풀)를 비롯해 다비드 비야(발렌시아) 등 최정에 선수들을 투입할 기세고 프랑스도 니콜라 아넬카(첼시)·티에리 앙리(바르셀로나)·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등을 출격시킨다.

이밖에 독일 월드컵 우승팀인 ‘아주리군단’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의 ‘북방’ 카메룬과 맞닥뜨리고 ‘축구종가’ 잉글랜드는 올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대회 3연패 위업을 이룬 ‘파라오의 전사’ 이집트와 격돌한다.

한편 한국과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을 다룬 그리스와 나이지리아는 각각 세네갈, 콩고민주공화국과 홈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나이지리아 해법 찾는다

해외파 총출동... 오늘 밤 11시 30분 英서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개막 100일 전 아프리카 강호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모의고사를 치른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 오후 11시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로프트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역시 남아공 월드컵 본선 진출국인 코트디부아르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남아공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설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치르는 평가전이다. 게다가 코트디부아르는 남아공 월드컵 본선 상대인 나이지리아를 겨냥한 스파이 파트너다.

허 감독은 “코트디부아르는 오히려 나이지리아보다 전력이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면역을 쌓는 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평가전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 경기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비롯한 이청용(불턴), 기성용(셀틱), 이영표(알 힐랄) 등 해외파 주축들이 포함된 정예 멤버로 나선다.

허 감독은 아프리카 최강으로 꼽히는 코트디부아르와 이번 평가전에서 어떤 선수가 강팀에 강하지, 그리고 어떤 포메이션이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유효한지 파악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코트디부아르의 골문을 공략할 최전방 공격수로 이동국(전북)과 이근우(이와타)가 먼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1년8개월 만에 대표팀에 재발탁된 베데랑 앙정환(다렌 스티드)은 후반 조커로 투입될 전망이다.

허 감독은 1일 런던 도착 후 처음 실시한 훈련 뒤 “스트라이커는 교체로 투입할 것이다. 앙정환은 후반에 내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좌, 우측면 미드필더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지성과 이청용이 버티고 있어 든든하다. 20세 이하 대표 출신 김보경(오이타)과 지난해 포항 스틸러스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주역 김재성(포항)이 뒤를 받친다.

중앙 미드필더는 김정우(광주)와 기성용(셀틱)이 먼저 호흡을 맞추고 김남일(볼 톱스키)이 출격 명령을 기다릴 전망이다.

허 감독은 일단 포메이션의 기본이 되는 수비 라인에 포백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트디부아르가 주로 디디에 드로그바(첼시)를 최전방에 세운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이다.

좌, 우 풀백은 이영표와 오범석(울산), 중앙 수비는 조용경(제주)과 이정수(가시마)가 선발로 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풀백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차두리(프라이부르크)가 먼저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골문은 변함없이 이운재(수원)가 지



한편 이날 경기는 KBS2 TV에서 밤 11시 5분부터 중계방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히딩크, 코트디부아르 감독 계약 임박

거스 히딩크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코트디부아르를 이끌고 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2일(이하 한국시간) 네덜란드 일간지 데 텔레그래프를 인용해 “히딩크 감독이 이번 월드컵에 코트디부아르를 지휘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6월 러시아 대표팀과 계약이 만료

되는 히딩크 감독은 이후 2012년 유럽선수권대회까지 터키 대표팀을 맡기로 했다.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을 맡게 되면 이번 월드컵만 한시적으로 지도하는 ‘파트 타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코트디부아르는 어떤 팀? 드로그바·칼루 주축 아프리카 최강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종참가선수명단을 확정하기 전 모처럼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다. 아프리카 신흥 강호 코트디부아르다.

월드컵 본선 상대국인 나이지리아를 겨냥해 고른 스파이 상대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평가가 대표팀 안팎에서 나온다. 코트디부아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한국 49위)이다.

아프리카에서는 2010 네이션스컵 챔피언 이집트(10위)를 비롯해 나이지리아(15위)·카메룬(20)에 이어 네 번째다.

코트디부아르는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서 북한·브라질·포르투갈과 함께 G조에 편성됐다. 코트디부아르가 한국과 이번 평가전을 수락한 것은 월드컵에서 미지의 북한과 맞붙어야 하기 때문이다. 팀의 간판인 드로그바를 비롯해 원포워드 살로문 칼루(첼시), 미드필더 야야 투레(바르셀로나)와 디디에 조코리(세비야), 수비수 플로르 투레(맨체스터 시티), 에마누엘 예보우에(아스널) 등 주축 대부분이 유럽 빅리그 무대를 누리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2006년 독일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UEFA 후원 2017년까지 연장

현대·기아차가 유럽축구연맹(UEFA)에 대한 후원을 오는 2017년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현대·기아차는 오는 2012년과 2016년 UEFA 유로 축구대회를 연달아 공식 후원하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2일 오전 현재 본사에서 양승석 현대차 사장·기아차 이형근 사장·미셀 플라티니 UEFA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운데 조인식을 하고 UEFA 유로 축구대회를 2017년까지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0년 유로 대회부터, 기아차는 2008년 대회부터 각각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왔다. 특히 ‘유로 2008’ 대회부터는 현대·기아차가 공동으로 최고 등급 공식 파트너(EUROTOP Partner)로 격상됐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는 일본, 그리스는 북한 상대 한국 겨냥 시뮬레이션 경기

남아공 월드컵 D-100

-B조 어떻게 준비하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의 본선 조별리그 상대국인 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그리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맞붙는 나이지리아는 올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 진출 좌절의 책임을 물어 사이바 아모두(52) 전 감독을 해임하고 나서 고심 끝에 스웨덴 출신의 라르스 라거백(62)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나이지리아는 라거백 감독의 지휘 아래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월드컵 준비에 나선다.

라거백 감독은 1990년부터 6년간 스웨덴 21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스웨덴 성인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16강, 200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4) 8강 진출에 앞장섰다.

스웨덴이 남아공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난 라거백 감독은 브루노 메추(프랑스), 라토미르 두이코비치(세르비아), 스펠 예란 에릭손(스웨덴)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슈퍼 이글스’의 지휘봉을 잡았다.

4-4-2 전형을 기본으로 수비와 역습, 측

면 돌파를 이용한 공격을 구사하는 라거백 감독의 취임으로 나이지리아는 날개를 달게 됐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까지 2회 연속 16강에 올랐던 아프리카 전통 강호가 비상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나이지리아는 5월에는 한국을 겨냥해 일본과 평가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2차전 상대인 아르헨티나는 지난 달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 위주로 대표팀을 꾸려 코스타리카(3-2 승), 자메이카(2-1 승)를 차례로 눌렀다.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은 3일 독일과 박매치를 통해 선수들의 긴장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직전인 5월24일 캐

2010 남아공 월드컵 B조 전력분석			
KOR 대한민국	ARG 아르헨티나	NGA 나이지리아	GRE 그리스
FIFA 랭킹 49위	FIFA 랭킹 5위	FIFA 랭킹 15위	FIFA 랭킹 12위
14명(7명 주, 7명 예비)	18명(9명 주, 9명 예비)	12명(9명 주, 3명 예비)	12명(9명 주, 3명 예비)
4강 진출(2002년 한일 월드컵 4위)	우승(1986, 2014)	16강(1994, 2002)	조별리그 탈락(1994)
28명(6명 주, 22명 예비)	4명(3명 주, 1명 예비)	35명(6명 주, 29명 예비)	77명(12명 주, 65명 예비)
해정환/박지성/이영표	디에고 마라도나/리오넬 메시	아이우어 아모두/존 오비디에	모토 케레켄/티오리스 베키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스페인(레알 마드리드) 감독	스웨덴(보룬스) 감독	스웨덴(보룬스) 감독

나와의 흥행기가 잡혀 있다. 그리스는 다 음날 북한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한국을 겨냥한 시뮬레이션 경기를 치른다.

5월 말까지 담금질을 마친 조별리그 상대국들은 6월 초 남아공 베이스캠프로 이동해 현지 적응에 들어간다.

그리스는 해안도시인 더반 인근의 음출라기에 동자를 쓴다. 5성급의 베베리힐스 호텔을 대표팀 숙소로 정했고 차량으로 15분 거리의 노스우드학교 운동장을 훈련장

으로 사용한다.

그리스는 더반이 해발이 0m임에도 한국과 격돌하는 포트엘리자베스(모세스마비다 스타디움)와 환경 조건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베이스캠프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프리토리아(해발 1천214m)의 하이퍼포먼스센터를 대표팀 숙소로 정했다. 훈련은 인근의 프리테아대학 구장에서 한다. 아르헨티나는 해발 1천753m의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2차전을 벌이기 때문에 고지대 적응 차원에서 프리토리아를 베이스캠프 장소로 선택했다.

나이지리아의 베이스캠프는 더반 북동쪽에 있는 발리토다. 호텔은 햄스발리토이고 훈련은 아서트대학 운동장에서 한다.

월드컵 개막 100일을 앞두고 조지력 끌어올리기에 나선 이들 3개국에 한국과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